

녹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일선 한의원, 국산녹용 외면 말라 -

인터넷 한의약 관련 한 사이트에 게재 된 국산녹용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안다희라고 이름을 밝힌 필자는 글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비양록인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의약 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외산녹용으로 인해 소외 받고 있는 국산녹용의 문제점을 전문가 이상의 식견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일선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안다희(충북 충주시 목행동)

평소에 항상 의문을 품었던 녹용 문제에 대해 직접 취급하시는 분께 여쭙 보고 싶은 게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녹용 최대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이 허약해졌다고 느낄 때, 양약보다는 한약으로 원기를 보하고 싶은 일반적 정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약을 지으려면 큰 맘 먹고 한의원을 찾게 마련인데, 한의원에서는 왜 국산 녹용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고, 수입 녹용만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라 농가에도 사슴을 키우는

목장이 많이 늘어나고 생산량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TV에서 심심하고 질 좋은 국산 녹용을 소비시키지 못하고 몇 년씩 냉동실에 묵고 있거나 폐기 처분되기 일쑤라는 보도를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군요. 녹용 최대 소비국인 우리 나라에서 최대 소비기관은 한의원이 되겠는데, 한의원에는 아예 유통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농민들이 어디다 팔겠습니까? 꼭 국산 녹용을 사려면 제철에 뿔을 자를 때 계를 엮거나 아는 농장을 수소문하여 사야 되는데, 약 지으러 가는 사람이 그냥 한약방 가기가 쉽지, 이렇듯 번거롭게 녹용을 따로 챙겨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편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유통 경로로는 아무래도 대량 소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수입 약재나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는 병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유통 기관인 한의원에 국산과 수입을 함께 진열해 놓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길 수는 없을까요? 아니 함께 진열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학'이라는 듣기만 하여도 숙연해지는 대의명분에 걸맞게 비싼

달러로 수입한 녹용을 아예 없애 버리고, 국산품을 애용하면 안 될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수입 녹용이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국산은 약효가 없고 수입이라야만 약효가 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수입보다 못한 국산 농산물이 있다는 소리를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일반 소비자의 경우 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진짜 녹용은 세상에 없다느니 진짜 녹용은 까슬까슬 털이 붙었다느니(세상에 털 없는 사슴뿔도 있을까?) 할 정도로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분에 따를 뿐이니 선택은 전적으로 한의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도 하더군요. 국산은 비싸서 이익이 적으니까 값이 싼 것을 써서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러나 저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장사란 어차피 원가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여 팔기 마련인데 비싸면 비싼 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면 못 팔아서 폐기 처분까지 하는 마당에 가격은 얼마든지 절충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혹시 이제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취급하기 손쉽고 편리하니까 습관에 의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부터 길을 가다가도 한의원이 눈에 띄면 불쑥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도 했습니다만, 만약 진짜로 그랬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도 남겠지요. 또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나서서 수입 녹용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국산을 쓰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또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것이고 시장 원리니 뭐니 해서 반발이 대단하겠지요.

소비자는 국적 불명의 생산 연도도 알 수 없는 수입품이 아닌 국산을 쓸 수 있어 좋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는 농가 소득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 좋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무슨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핵심적 약재의 수급과 정까지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녹용은 폐기 처분되고 막대한 달러를 들여 외국에서 계속 녹용을 수입하여 IMF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긴 매사가 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집단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걸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문제에 가려져 쟁점화되기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적인 문제라도 그것을 먼저 알고 느낀 사람부터 차츰 공론화시켜 나가다 보면 어떤 합의된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국양득**